

Rafal Blechacz

쇼팽 명인이 선택한 최상의 파트너

CREEDIA

라파우 블레하츠 & 김봄소리  
듀오 콘서트

Kim Bomsoori

# RAFAŁ BLEHAŁCZ

# &

# BOMSORI KIM



## 쇼팽 명인이 선택한 최상의 파트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은 라파우 블레하츠가 오랫동안 고민한 최초의 실내악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김봄소리를 선택한 것은 한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봄소리는 최근 명성이 높은 국제 콩쿨에서 연속적으로 상위 입상하면서 많은 음악가로부터 협연 제안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 투어를 목표로 진행되며, 특히 정규 투어 이전에 블레하츠의 모국인 폴란드에서 마련된 듀오 콘서트는 전석 매진될 정도로 세계 각지에서 인기 급부상 중이다.

##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 2005 쇼팽 콩쿠르 우승자 폴란드 대표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

2017년 첫 내한공연 이후 2019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라파우 블레하츠!

블레하츠는 쇼팽 콩쿠르에서 1975년 크리스티안 짐머만 이후 30년만에 배출된 폴란드 출신 우승자로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하라세비치, 짐머만을 잇는 폴란드 대표 피아니스트로 평가 받는다. 한국인 연주자 임동민, 임동혁 형제가 공동 3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당시 콩쿠르에서 블레하츠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내 팬들에게도 낯익은 아티스트이다. 또한 세계적인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짐머만에 이어 두 번째로 계약한 폴란드 피아니스트이다.

##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비르투오조 - 차세대 한국 대표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김봄소리는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실력을 선보이며 성과를 일궈낸 가장 '핫'한 차세대 비르투오조이다. 최근에는 라파우 블레하츠의 요청으로 듀오 공연을 열어 화제가 되는 등 세계 클래식 시장의 주목을 한껏 받고 있는 연주자이기도 하다.

2016년 10월, 폴란드에서 열린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출전한 김봄소리의 연주를 듣고 블레하츠가 직접 이메일을 보낸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김봄소리는 당시 2위에 올랐는데 '1위보다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상 깊은 연주를 선보였다.

## 정상급 듀오의 품격을 만나다

라파우 블레하츠의 섬세하고 균형감 있는 음색, 김봄소리의 세련되고 열정적인 선율이 선보이는 환상의 호흡! 모차르트, 포레, 드뷔시, 시마노프스키 등 심도 있는 레퍼토리 두 연주자가 선보이는 완벽한 호흡으로 듀오의 품격을 마주할 것이다!



화려한 두 아티스트의 만남!



# 쇼팽 콩쿠르 우승자 라파우 블레하츠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 2위 김봄소리

포레 · 드뷔시 · 시마노프스키 · 쇼팽

\*

라파우 블레하츠의 DG 최초 챔버 음악 앨범이자 김봄소리의 DG 데뷔반!

포레, 드뷔시,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와  
쇼팽의 녹턴 20번 역시 듀오 버전으로 편곡되어 담겼다



# CREDIA

## PROGRAM

### PART 1

**W. A. MOZART** 1756-1791 |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 24 in F Major, K. 376**

모차르트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4번 F장조

- I. Allegro
- II. Andante
- III. Rondo. Allegretto grazioso

**G. FAURÉ** 1845-1924 |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1 in A Major, Op. 13**

포레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A장조

- I. Allegro molto
- II. Andante
- III. Allegro vivo
- IV. Allegro quasi presto

- INTERMISSION -

### PART 2

**C. DEBUSSY** 1862-1918 |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inor, L 140**

드뷔시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 I. Allegro vivo
- II. Intermède. Fantasque et léger
- III. Finale. Très animé

**K. SZYMANOWSKI** 1882-1937 |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D minor Op. 9**

시마노프스키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 I. Allegro moderato. Patetico
- II. Andantino Tranquillo e dolce
- III. Finale. Allegro molto quasi presto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This program may be changed without prior notice upon artist's request.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모차르트 |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K.376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의 역사는 어느 정도 음악 매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모차르트가 파리에서 당시 여덟 살 때, 악기들의 혼성 연주를 주제로 한 작품을 최초로 완성했을 당시(이미 그는 7살 전에 이러한 것들을 시작했다), 그는 바이올린 반주가 딸린 건반 악기의 소나타를 작곡하고 있었다. 이 장르는 귀족 사회 기간 동안 사회적 상황의 반영 또는 묘사로서 발전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프시코드나 피아노 레슨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 신분제도 상의 상류 계층에 속해 있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요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신사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로부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후원을 받는다는 이들의 생각은, 적어도 여가나 문화적 환경으로 사회 내부의 성별에 따른 역할로 교묘하게 포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주용 소나타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이 장르가 나타나게 된 당시의 사회 관습대로 항상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였다. 비록 18세기 후반, 바이올린이란 악기가 좀 더 다루기 쉬웠고 하지만, 이 악기가 보조적이고 반주의 역할로만 할당된다는 것은 바이올린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설득력의 잠재력은 무시하거나 미개발 상태로 놓아두기엔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이다. 모차르트를 비롯한 동시대의 음악가들의 소나타들은 음악 매개체를 다루는데 있어서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1760년대부터 작곡된 작품들에서는 사실상 음악에 관련된 모든 논쟁들은 피아노 부분에 담겨졌다. 하지만 바이올린은 단지 음률의 조화를 유지하고, 반주의 음형을 첨가하였으며, 나아가 3도 내지는 6도 아래의 선율을 반주하거나(심지어 단순히 한 옥타브 아래의 선율) 포르테 악절의 건반 연주를 보강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드물게, 바이올린 연주자는 멜로디의 한 도막을 연주하거나 피아노 연주자의 오른손 연주와 함께 대화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780년경 후반부터 몇몇의 작곡가들은 계속되는 딜레탕트 시장의 압박에 의하여 악기들이 보다 대등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통합된 스타일로 변화해 갔다. 이 대등한 관계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서로 다르듯이, 악기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바이올린이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정될 수 있었고, 피아노가 단지 보조나 보강의 역할을 하는 진정한 바이올린 소나타의 시대는, 낭만주의 비르투오소의 시대를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실은 모차르트가 비엔나 체류 시, 특출한 비르투오소를 염두에 두고 작곡한 K.454 소나타에서 각 악기가 맡고 있는 역할의 균형과, 한 세기가 지난 후 프랑크나 브람스가 작곡하였던 음악들의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

1781년 여름 모차르트는 세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다. K.376(374d), K.377(374e), K.380(374f)가 그것으로서, 이전에 작곡한 K.296, K.378, K.379와 함께 이 여섯 개의 작품은 한 세트로 그해 12월 Op.2를 달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판되었다(그의 Op.1은 그가 유년시절 파리에서 작곡, 출판한 바이올린 소나타 세트). 그가 프리랜서 작곡가를 선언하고 독립한 이후 처음으로 작곡한 이 여섯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들



은 모차르트가 자신의 피아노 제자였던 요제파 바르바라 아우렌함머(Josepha Barbara Auernhammer)에게 헌정한 만큼 '아우렌함머 소나타'로 불리기도 한다. 이 가운데 K.376은 Op.2의 다른 작품들처럼 초기 소나타들에서 사용했던 두 개의 악장 구성을 벗어나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이내믹하고 주제들의 대조가 현격한 Allegro 악장, 유려한 흐름이 돋보이는 Andante 악장, 마지막으로 우아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Rondo 악장.

## 포레 |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Op.13

■ 오늘날 프랑스 계열이 아닌 음악 감상자들에게 있어서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e, 1845~1924)의 작품들은 현대적이라기보다는 고전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의 동료 작곡가들, 예를 들어 라로, 샤르팡티에, 샤브리예, 뒤파르크, 댕디 등도 이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긴 힘든 것이 사실인데, 사실상 이들이 활동할 당시는 프랑스 음악에 새로운 봄이 다가왔던 중요한 시기였다. 포레를 비롯한 그 시대 작곡가들은 낭만주의 시대의 유산을 재평가하면서 여기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보다 명료하게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그들이 살았던 서정적인 세계에서는 정확함과 완벽한 밸런스, 특별하면서도 풍부하며 멋있는 뉘앙스를 가진 음향과 톤 컬러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 가운데서 포레의 음악은 돋보일 정도로 이 세 개의 요소가 창조적이었고 표현력은 풍부했으며 형식적으로도 완전했다. 그의 음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피아노 음악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의 피아노 음악으로부터 휴고, 고티에, 보들레르, 베를랭, 마테르링크 등 동시대의 위대한 시인들이 남긴 그 흥분적인 운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쇼팽이나 리스트와는 다른 개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바흐와 베토벤과 같은 위대한 형식미를 계승한 포레의 개성적인 어법이 잘 드러나는 또 다른 장르가 바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로서 1876년에 작곡한 A장조 Op.13과 무려 40여년 뒤인 1917년에 작곡한 E단조 Op.108, 1879년에 작곡한 D장조 Op.16, 1897년에 작곡한 안단테 B플랫 장조 Op.75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처음 작곡된 A장조 소나타는 1877년 1월 초연을 가진 뒤 생상스를 비롯한 많은 동시대인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던 명곡으로 손꼽힌다. 형식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전체 네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소나타에 담긴 내용은 다른 피아노 작품들이나 실내악 작품들과는 달리 보다 확실히 차있고 심오하며 개성적인 필치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1악장 Allegro molto는 열정적인 첫 주제로 시작하며 피아노와 바이올린은 정겨운 친구인 것처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고 표현력 강한 두 번째 주제에서는 반음계적인 강렬함으로 맞서기도 한다. Andante 2악장은 바르카롤적인 피아노

반주로 시작하는데 줄곧 피아노의 반응계적 아르페지오가 펼쳐지면서 부유하는 듯한 분위기를 견지, 이에 바이올린이 클라이맥스를 주도하며 놀라운 만한 음향을 만들어낸다. 3악장 Allegro vivo - Scherzo는 말 그대로 스케르초 악장으로 바이올린의 맹렬한 리듬과 피치카토, 피아노와의 교차리듬, 풍부한 화성적 볼륨감이 돋보인다. 트리오 부분의 칸타빌레와 포레 특유의 신비로운 음향도 일품. 마지막 4악장은 Allegro quasi presto로서 드라마틱한 쏟아냄과 감정적인 울렁거림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중간 중간 사랑스러운 낭만적인 주제가 끼어드는 것이 특징적이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코다의 비르투오시티 넘치는 테크닉적인 맹렬함과 화려하기 그지없는 스피카토 스케일이 대곡으로서의 확실한 종지를 장식한다.

### 드뷔시 |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L 140

■ ‘백과 흑’, ‘연습곡’과 같은 피아노 작품 이후 클로드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는 말년에 접어들며 다시금 실내악 장르로 돌아왔다. 그가 19세기에 작곡했던 현악 4중주 이후 실내악 작품의 명맥이 완전히 끊겨있던 상황에서 그의 결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상태였고, 게다가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겹쳤다. 드뷔시는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혹은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문화적 자존심을 곧추세우고자 프랑스의 정신이 담긴 실내악 작품을 작곡하고자 결심했다. 그는 1915년 친구에게 보낸 한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네.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독일 군인들이 프랑스 고유의 사상을 결코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고 싶단 말일세.”

이러한 애국적 감정이 고조된 작곡가의 최초의 계획은 라모의 콩세르를 모델로 하여 여러 악기를 위한 여섯 곡의 실내악 소나타를 작곡한 뒤 ‘클로드 드뷔시, 프랑스의 음악가’라는 서명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강이 계속 악화된 탓에 세 곡만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1915년)이고 두 번째가 플루트와 비올라, 하프를 위한 소나타 F장조(1915년), 마지막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1916~17년)다. 드뷔시는 이들 소나타를 통해 자신이 제창한 인상주의 음악과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함을 통합하고자 했다. “프랑스 음악은 어디에 있는가? 음악에 그토록 진실했던 옛 클라브생 연주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우아함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과장되지 않은 감정을 체득하고 있었는데!” 라모가 콩세르에서 악기들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준 것처럼, 드뷔시 또한 소나타 형식을 통해 이러한 자연스럽고 귀족적이며 프랑스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음악적 유희를 창조해내고자 했던 것이다.

앞선 두 개의 소나타가 단시간 내에 작곡된 것에 비하여 바이올린 소나타는 죽음이 임박한 드뷔시로서 대단히 힘들게 작곡, 완성된 작품이다. 결국 이 소나타는 드뷔시의 백조의 노래가 되었다. 1916년 10월에 작곡을 시작하여 1, 2악장은 1917년 2월에 완성되었지만 훌륭한 아이디어를 이미 갖고 있었던 3악장만큼은 그 속도가 더더 그해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 5월 5일 파리의 가보 홀에서 자신의 피아노 반주와 바이올리니스트 가스통 뵈레의 연주로 초연되었고, 이후 그해 9월 드뷔시가 살던 생-장-드-뤼즈에서 다시 한 번 연주되었다. 이것이 그가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마지막 연주회로서, 1918년 1월 25일 아직 전쟁이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던 상황에서 드뷔시는 10여 년 동안 괴롭혀온 암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드뷔시는 고전적인 소나타를 다룸에 있어서 형식적인 음의 설계나 다이내믹의 상호작용보다 멜로디의 선율미, 화성의 뉘

앙스, 악기의 질감, 음향의 쾌락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는 드뷔시 이후의 러시아 작곡가들이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04년 친구에게 보낸 한 편지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프랑스의 음악적 천재성은 어쩌면 관능적인 꿈과도 같다. 음악은 일체의 과학적 장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음악은 겸허하게 쾌락만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아름다움은 아마 이러한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에서 현실화시켰다.

1악장 Allegro vivo (매우 빠르게)에서는 고전적인 소나타 양식의 원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얼핏 순환주제와 같은 기법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작곡가는 이 가운데에서도 규칙보다는 유연성을, 설명보다는 암시를, 경직된 조성보다는 한층 애매한 조성을 선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2악장 Intermède. Fantasque et léger (막간곡. 환상적이고 가벼운)은 앞선 작품에서와 같은 일종의 간주곡으로서 두 악기 사이의 재치 있는 유희를 통해 소나타 형식에 환상적인 자유로움을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 3악장 Finale. Très animé (매우 생기 있게)는 전통적인 빠른 악장으로서 시적 환상과 정묘한 음색이 만들어내는 비정형적인 움직임을 담고 있다.

### 시마노프스키 | 바이올린 소나타 D단조 Op.9

■ 쇼팽 이후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평가받는 카롤 시마노프스키(Karol Szymanowski, 1882~1937)가 1904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D단조 Op.9는 그의 초기작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서 쇼팽과 스크리아빈, 프랑크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만의 강한 개성과 독창적인 음향이 돋보인다. 1909년 4월 3일 바르샤바에서의 초연은 작곡가와 친분이 두터웠던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Artur Schnabel, 1878~1951)과 바이올리니스트 파울 코찬스키(Paul Kochanski, 1887~1934)의 연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작품은 텍스처가 두텁고 찰나에의 표현력을 극대화시키는 기법이 돋보이는 피아노 파트가 돋보이는데, 이는 스크리아빈의 전주곡이나 즉흥곡보다는 초기 피아노 소나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화성적 색채에 비견할 만하다.

첫 악장인 Allegro moderato: Patetico는 비창적인 느낌과 웅변적인 어조가 강하게 배어나는 1주제로 시작한다. 2주제는 조용하면서 서정적인 느낌으로서 프랑크적인 반응계가 사용되면서 열정적인 클라이맥스를 유도한다.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으로서 발전부와 재현부를 거친 뒤 다시금 2주제에 의해 짧고 고요한 코다로 마무리된다. A-B-A 형식으로 구성된 2악장은 Andantino tranquillo e dolce. 트란퀼로적으로 반짝이는 반주와 달콤한 아리아를 부르는 듯한 바이올린이 긴 멜로디를 함께 하며 시작하는 이 악장 또한 피아노의 역할이 지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의 영향을 받은 듯한 바이올린의 고음역 패시지와 기나긴 진행이 듣는 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가운데 부분은 일종의 스케르찬도로서 피치카토의 움직임이 인상적이고 이내 안단티노의 주제로 돌아와 보다 각별한 표정을 자아내는 고요함으로 마무리 짓는다. 마지막 3악장은 Finale: Allegro molto, quasi presto로서 격렬한 타란텔라의 리듬과 카논 형식에 힘입어 1주제가 등장하고 외향적이면서 관능적인 2주제가 차례로 등장한다. 이 두 주제는 모두 앞선 악장들의 주제들과 연관을 맺고 있어 일종의 순환주제로서의 성격이 띄고 있는데, 중간 부분의 스케르초 에피소드 이후 많은 요소들과 에피소드, 리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가 다시금 주요주제로 돌아온 뒤 짧고 강렬한 코다와 함께 음악은 끝을 맺는다.

듀오로 맺어진 인연, 최고의 파트너가 되다

##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 폴란드 출신의 라파우 블레하츠와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함께 전 세계 듀오 투어를 진행 중이다. 섬세하고 균형감 있는 연주와 테크닉적 선율로 듀오의 매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쇼팽 명인이 선택한 최상의 파트너

두 사람의 인연은 2016년 폴란드에서 열린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이하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김봄소리는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했는데, "1위보다 탁월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콩쿠르에 출전한 김봄소리의 연주를 인상 깊게 들은 라파우 블레하츠가 그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를 청중의 입장으로 감상했습니다. 김봄소리 씨의 연주를 들은 후,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완벽한 음악적 파트너이자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음악적 감성, 색깔, 표현 등에 감명을 받았죠. 또한, 유럽권 작곡가들의 작품에 그녀의 음악적 스타일, 음색이 잘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파우 블레하츠)

"이메일로 블레하츠 씨의 제안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먼저, 그가 폴란드에서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를 관심 있게 보았다는 사실에 놀랐고, 제 연주를 듣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메일을 주어 놀랍고 기뻐했습니다. 평소 블레하츠씨의 연주 앨범을 자주 들었는데 '같이 연주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무척 설렘었습니다."(김봄소리)

2017년 말, 김봄소리 유럽 투어 콘서트가 끝날 무렵 즈음 폴란드에 머물고 있던 블레하츠와 만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었다.

"3박 4일 정도 빡빡한 일정을 잡아 리허설을 진행했어요. 서로 호흡이 잘 맞을지, 리허설 스타일은 어떨지, 내 연주가 그에게 어떻게 들릴지 별별 걱정을 가득 안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리허설을 했습니다.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로 리허설을 시작했죠. 그러나 걱정은 잠시, 블레하츠 씨가 연주하는 전주를 듣고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음악적 스타일을 지녔는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오롯이 음악에만 집중하며 마법처럼 리허설이 진행되었죠. 그의 음악은 가식이나 화려한 치장 없이, 자신은 내려놓고 음악만을 드러내는 자세가 느껴지는데,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 바로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음악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음악

적으로도 매우 뛰어나지만 사람 자체가 거짓이 없고, 음악에만 온 삶을 헌신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 영감을 얻었고, 제 자신도 한 단계 성숙해지는 느낌입니다."(김봄소리)

### 특별한 인연을 음악에 새기다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은 라파우 블레하츠. 그가 국내 연주자인 김봄소리를 자신의 최초 실내악 파트너로 선택한 사실은 곧 한국 음악계가 세계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김봄소리는 최근 명성이 높은 국제콩쿠르에서 연속적으로 상위 입상하며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로부터 협연 제안을 받고 있다. 이에 바르샤바 필하모닉과의 녹음 음반이 워너 레이블로 발매되었고, 블레하츠와의 첫 녹음은 지난 7월 베를린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김봄소리 씨는 줄리어드 음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베를린까지 와 주었어요. 베를린에서 6~7일 동안의 녹음 작업 진행하며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서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나누었고, 각 악장마다 음악적 색깔과 호흡을 맞추며 녹음을 완성했어요."(라파우 블레하츠)

특히, 이번 앨범은 블레하츠가 도이치 그라모폰(이하 DG)을 통해 발매하는 최초의 실내악 음반이며, 김봄소리의 첫 번째 도이치 그라모폰 앨범이다.

"2017년 말, 제 데뷔 음반으로 두 협주곡을 녹음하여 발매했는데, 두 번째 음반을 이렇게 훌륭한 음악적 파트너와 협업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또 이 음반이 제 DG 데뷔 음반이기도 하고요. 이 노란 로고의 레이블은 제가 어렸을 적,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던 레이블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제 스승이신 김영욱 선생님의 음반을 통해서였죠. DG은 이 음반뿐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인 명반이 많이 탄생한 레이블이기 때문에 DG에서 음반을 내게 된 것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김봄소리)

이 앨범에는 라파우 블레하츠와 김봄소리가 함께 다가오는 공연에서 선보일 포레, 드뷔시,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수록했으며, 2019년 1월 24일에 DG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다. 연주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은 쇼팽의 <녹턴>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폴란드 작곡가인 시마노프스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작곡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작곡가입니다. 그의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이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깊게 알고 싶었고, 공부하면 할수록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언제나 연주자와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의 신선하고 기발한 음악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평소 블레하츠 씨의〈드뷔시 & 시마노프스키〉음반을 즐겨 들어, 그와 연주 했을 때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역시나 실제로 그와 연주하는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음악적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은 피아니스트 파트가 생기면 꼭 같이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라, 제가 블레하츠 씨에게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 곡을 리허설 할 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포레의 작품은 피아노 파트가 어렵기로 유명한 작품인데, ‘함께하는 음악가와 호흡이 잘 맞으면 이런 경험까지 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특별한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드뷔시의 유작인 〈바이올린 소나타〉 역시 블레하츠 씨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블레하츠 씨가 들려주는 드뷔시는 작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본인 특유의 투명한 음색을 통해 수채화처럼 빛깔이 포개지는 드뷔시의 피아노 선율. 거기에 제 바이올린 소리가 잘 어우러져 이 작품에서 역시 희열감을 경험하죠.”(김보소리)

### 두 개의 색깔이 어우러지는 것 ‘듀오’

“독주회와 듀오, 두 가지의 연주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혼자서 연주를 진행할 때에는 제 자신에게 집중을 하죠. 제 감정, 즉 스스로 느끼는 컨디션과 그날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다른 연주자들과의 듀오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살펴야 해요. 독주 연주를 할 땐 경험할 수 없는 흥미로운 일이에요. 상대방 또한 제 감정을 세심하게 살펴봐주고 집중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듀오는 결국 함께 할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 편안한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파우 블레하츠)

“피아노와의 듀오는 나와 다른 개인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피아노가 다성부 악기인 만큼 1:1의 대

화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앙상블, 심지어 오케스트라와의 대화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두 명이 꾸미는 듀오 무대에서 다채로운 음악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장르죠. 때문에 음악적 내용에 따라 제가 취하는 태도를 수시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 재미있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듯이 블레하츠 씨와 하는 듀오도 서로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매 연주가 흥미롭고 기대됩니다. 연주는 늘 새로운 관객과 새로운 연주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도 달라지고, 따르는 결과물도 변화해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자유롭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김보소리)

이처럼 홀로 하는 독주가 아닌 함께하는 듀오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만, 그 과정을 즐길 만큼 자유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서로를 위한 배려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첫 리허설은 2017년 겨울에 제가 폴란드 투어중인 시간에 맞춰 폴란드에서 진행했고, 다음은 2018년 봄에 블레하츠 씨가 일본 투어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와주었어요. 서로 사는 곳도 다르고 늘 연주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리허설 시간을 확보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리허설 시간 안에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 각자 준비를 충실히 하고, 연습은 물론이며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줍니다. 이후 함께 리허설 할 때에 각자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요.”(김보소리)

그렇게 전달한 메시지는 서로의 연주에 그대로 스며들어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 낸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보라색이 나오고, 초록빛과 빨간빛이 어우러져 노란빛을 띄듯 각자 다른 두 가지의 음악적 색깔이 입혀져 새로운 음악적 색깔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자신만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친다. “삶의 모든 부분이, 심지어는 오늘 먹었던 맛있는 저녁 메뉴도 음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연주가 제 음악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함께해온 연주들과 녹음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이해가 깊을수록 무대 위에서 더 자신 있게 제 음악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고, 그만큼 피아니스트도 과감하고 신

선하게 제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연주와 음악에 대한 시선과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김보소리)

### 아름다운 동행, 전 세계 투어

현재 전 세계를 무대로 투어 중인 이들이 앞서 폴란드에서 마친 듀오 콘서트는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세계 각지에서 인기를 얻었다.

“제 생각에는 김보소리 씨가 제 모국인 폴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수상했던 사실이 폴란드 공연 전석 매진에 한몫 더해준 것 같습니다.”(라파우 블레하츠)

“폴란드에서 음반 녹음 전 진행했던 투어 공연들은 일찌감치 전석 매진이 되고 압표가 판매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음악을 여러 도시에서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폴란드는 클래식 음악의 위상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주요 공항의 이름이 쇼팽이나 비에니아프스키 등 폴란드 작곡가의 이름으로 붙여져 있을 정도니까요. 펜데레츠키나 루토슬라프스키 등 폴란드의 현대 작곡가의 위상도 대단한 만큼 그들이 클래식 음악에 가지는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 때 받았던 폴란드의 전국적인 관심은 이상한 게 아니었죠. 폴란드 출신이자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블레하츠 씨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악가이고, 이번 듀오 소식으로 기대와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김보소리)

이들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권을 비롯하여 한국, 홍콩 등 아시아 투어를 진행 중이며, 2020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듀오 연주 또한 계획 중이다. 다양한 연주회 및 페스티벌에서 초청받고 있는 이들이 서로 분

주한 일정 속에서 펼치는 이 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전 세계투어 연주를 하는 것은 연주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주할지라도 각 나라의 다른 음향과 음질을 가진 홀, 즉 다른 분위기 속에서 연주할 수 있어 모험이라 생각도 들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투어가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 나라의 청중과 우리만의 음악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파우 블레하츠)

“오는 2월 뉴욕필하모닉과 데뷔 무대가 있어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로 뒤이어 블레하츠 씨와의 한국 투어 무대는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폴란드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한국 관객들과도 이 듀오 무대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번 DG 음반 발매와 함께 국내 듀오 연주를 진행하게 되어 무척 기대가 되고,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와 독주, 듀오 앙상블 무대가 가지는 매력과 배우는 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연주자 중심을 잘 잡아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김보소리)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인 쇼팽콩쿠르의 우승자 라파우 블레하츠와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김보소리. 이들은 오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에 걸쳐 국내 관객을 찾는다.

“다가오는 내한 공연으로 인해 요즘 매우 행복합니다. 지난 2017년도에 서울에 연주 일정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연주 내내 저와 한국인 청중이 함께 음악으로 교감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지난 연주회를 마치고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팬 사인회도 생각나네요. 한국 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김보소리 씨와의 듀오 연주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라파우 블레하츠)

〈피아노음악〉 2월호 | 진행 · 정송희 | 글 · 윤다정 기자

### 라파우 블레하츠 & 김보소리 듀오 콘서트

일시 | 2월 16일(토) 오후 5시  
장소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시 | 2월 21일(목) 오후 8시  
장소 | 울주문화예술회관

일시 | 2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대구 수성아트피아

일시 | 2월 23일(토) 오후 5시  
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RAFAŁ BLEHACZ  
PIANIST

라파우 블레하츠, 피아니스트

■ 2005년 10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제15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무대에 등장한 블레하츠는 우승을 비롯해 마주르카, 폴로네이즈, 협주곡, 그리고 소나타 상까지 네 개의 모든 특별상을 휩쓸었다. 1985년 폴란드 나크워 나트 노트치웅에서 태어난 그는 5살 때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하였고, 비드고슈지의 아더 루빈스타인 주립 음악학교 입학해 피아노를 공부했다. 2007년 5월에 비드고슈지의 펠릭스 노워위스키 음악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카타지나 포포바 지드론을 사사했다.

2005년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전 세계 유명 콘서트홀에서 연주하였다. 런던의 로열 페스티벌홀, 위그모어홀, 베를린 필 하모니, 프랑크푸르트의 알테 오퍼, 뮌헨 헤라클레스홀, 슈투트가르트의 리터할레,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취리히의 톤할레, 암스테르담의 콘체르트허바우, 파리의 살 플레엘, 브뤼셀의 팔레 데 보자르, 뉴욕의 에이버리 피셔홀,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등 저명한 장소에서 공연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 프랑스 라 로크 당테롱, 독일의 클라비에 페스티벌, 미국의 길모어 페스티벌 등 유명 음악 페스티벌에서 지속적으로 블레하츠를 초청하고 있다.

그는 세계 우수 오케스트라와 권위 있는 지휘자들과 공연했는데, 발레리 게르기예프, 미하일 플레트네프, 샤를 뤼투아, 데이비드 진먼, 마렉 야노프스키, 예지 마크시미우크, 다니엘 하딩, 파보 예르비, 파비오 루이지, 켄트 나가노, 안드리스 넬스, 빅토르 파블로 페레즈, 트레버 피녹, 제르지 섴코우, 안토니 비트 등이 그들 중 일부이다.

2006년 5월 29일, 블레하츠는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전속계약을 맺으며 폴란드 출신으로는 크리스티안 짐머만의 뒤를 이어 두 번째 피아니스트로 기록되었다. 그의 첫 음반은 쇼팽의 전주곡 전곡을 담아 2007년 10월 유럽에 발매하였다. 이 음반은 발매 2주 만에 폴란드에서 플래티넘 레코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에코 클래식 상, 프랑스 디아파종상과 같은 많은 상을 수상했다. 2014년 1월에는 피아노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하며 4년마다 가장 뛰어난 예술가를 선정하여 그의 커리어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뉴욕 길모어 어워드 우승을 차지하였고, 2015년 2월에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 중 폴란드 대통령 십자 기사 훈장(President of the Republic of Poland's medal Cavalier's Cross of the Order of Polonia Restituta)을 수여 받은 바 있다. 2017년 2월에는 바흐의 작품으로 구성된 앨범이 발매되었고, 음반 공개 후 포틀랜드 프레스 헤럴드는 "이번 레코드에서 무엇보다도 특히, 그의 이탈리아 협주곡에 대한 해석은 명료했다"라고 평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파르티타 1번'과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에 대해 "그는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곡의 의미를 탐구한다. 또한 곡에 숨겨진 무언가를 밝혀내는 음악가임을 증명했다"라고 평하는 등 평단 및 관객의 극찬을 받았다. 2019년 1월에는 라파우 블레하츠의 솔로 앨범이 아닌 챔버 음악을 담은 앨범이 발매되었다. 특별히 이번 챔버 앨범에는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함께 했으며 포레, 드뷔시,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앨범은 블레하츠의 도이치 그라모폰 최초의 챔버 음악 앨범으로 클래식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봄소리, 바이올리니스트

■ 2013년 뮌헨 ARD 콩쿠르 우승과 현대음악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는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2016년 제15회 비에나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2위와 평론가 상을 비롯한 9개의 특별상을 휩쓸고, 제15회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2위와 캐나다 라디오 피플스 초이스 상을 거머쥐어 청중들과 현지 비평가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다시 한 번 국제무대에서 그 입지를 굳혔고, 2015년에는 세계 굴지의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와 퀴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 잇달아 입상,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입상경력을 남겼다. 그 외에도 2010년 샌다이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입상, 2010년 제 10회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입상, 2011년 차이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 및 3개의 특별상, 2012년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입상, 2016년 엘리스 앤 엘레노어 신펠트 국제콩쿠르 입상, 2015년, 2017년 줄리어드 콘체르토 콩쿠르 1위에 2회 입상하였다.

2018-2019 시즌에 김봄소리는 포즈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주음악가"로 임명되었고, 상주음악가 활동은 포즈난을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도시(베를린, 밀라노, 프라하 등)에서의 투어 활동을 포함한다. 올 시즌 그녀는 유럽의 역사적인 페스티벌인 드보르작 프라하 페스티벌 (루돌피눔), 루체른 페스티벌, 라인가우 페스티벌, 하이델베르크 봄 페스티벌, 게슈타드 메뉴한 페스티벌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데뷔무대를 앞두고 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의 명문 오케스트라 톤킨슬러 오케스트라 데뷔, 요미우리 니폰 오케스트라의 재 초청으로 산토리홀 데뷔 무대, 북미 지역에서는 링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데뷔, 로스앤젤레스 마에스트로 파운데이션 초청 리사이틀 데뷔, 라 호야 뮤직 소사이어티의 라이징 스타 시리즈 리사이틀이 예정되어 있다. 올 시즌도 지난 시즌에 이어 200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와 함께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 리사이틀 투어 공연도 앞두고 있다. 국제무대를 누비며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로 우뚝 선 그녀는 비엔나 뮤직페라인 황금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홀,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홀, 헬싱키 핀란드야홀, 뮌헨 헤라클레스홀, 베를린 필하모닉홀, 프라하 루돌피눔, 스테타나홀, 링컨센터 알리스털리홀, 바르샤바 필하모닉홀, 카네기 와일홀, 취리히 톤할레, 서울 예술의전당 등 세계의 유서 깊은 홀에서 마에스트로 압 판 즈베덴, 야첵 카스프쉬크, 루카스 보로비츠, 안드레이 보레이코, 마린 알슘, 유리 시모노프, 파블로 헤라스 카사도, 장카를로 게레로, 줄리안 코바체프, 리 신차오, 임헌정, 요엘 레비, 금난새, 존 스토가즈, 파스칼 베로, 사카리 오라모, 한누 린투, 안토니오 멘데즈, 최수열 등 저명 지휘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을 비롯해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바르샤바 필하모닉, 몬트리올 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모스크바 심포니, NDR 라디오 필하모니,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 왈론 로얄 챔버 오케스트라,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헬싱키 필하모닉, 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샌다이 필하모닉, 칭다오 심포니, 베이징 내셔널 방송 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부산 시향, 부천 시향, 줄리아드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17년 바르샤바 필하모닉, 마에스트로 야첵 카스프쉬크와 첫 음반 작업을 함께하였고 비에나프스키 협주곡 2번과 쇼스타코비치 협주곡 1번을 담은 음반을 Warner Classics (전 EMI) 레이블로 2017년 10월 전 세계 동시 발매하였다. 그녀의 두 번째 음반은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와 함께한 리사이틀 음반으로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에서 2019년 1월 출시되었다. 예원, 예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 뉴욕 줄리어드 음대 전액장학생으로 석사학위와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취득하였다. 김봄소리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실비아 로젠버그, 로널드 콕스와 공부하였고, 금호 악기 수혜자로 선정되어 현재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으로부터 J.B.Guadagnini 1774 Turin 바이올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김영욱, Sylvia Rosenberg, Ronald Copes, 양성식, 유시연, 평태식, 이난연을 사사하였다.

오페라, 이것은 축제다



오페라 카니발 2019

# OPERA CARNIVAL 2019



캐슬린 김 (소프라노), 정호윤, 김승직 (테너), 우경식, 조병익 (바리톤), 손혜수, 고우림 (베이스), 김덕기 (지휘), 코리아 쿵 오케스트라

2019. 3. 23 SAT 5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주관 ARTS & ARTISTS

티켓가격 R석 121,000원 S석 99,000원 A석 77,000원 B석 55,000원

예매처

예술의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아트앤아티스트 02-3443-9482-3

2018년 최다 관객을 모은 화제의 오페라!

# 귀족의 귀족

갈라폰서트



BARITONE 김주택

TENOR 김현수 정필립

BASS 손태진 고우림 한태인

2019. 5. 19 SUN 5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주관 ARTS & ARTISTS

티켓가격 R석 121,000원 S석 99,000원 A석 77,000원 B석 55,000원

예매처

예술의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Club BALCONY 1577-5266

공연문의

아트앤아티스트 02-3443-9482-3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